

월간 PIGHEAD LAB

피그헤드랩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36호
2025.8



X_ 그 곳에 가고싶다 : 바다 (1)

열네번째 원고

김혜현_ 가발 파는 갤러리스트

첫번째 원고

김희진_ 바닥화된 파인애플을 신어라

스물세번째 원고

오종원_ 방축도 섬해진미 투어

서른네번째 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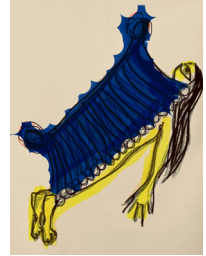
한량윤씨_철거-천장

네번째 원고

이채연_부부

서른세번째 원고

그 곳에 가고싶다 : 바다 (1)



X

작가 & 전시기획자

나에게 바다는 내가 예술로 펼쳐낼 수 없는 살아있는 유토피아이다.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의 어시장은 참으로 유명하다.

몇 년 전 창원 에스빠스리조트에서 일을 할 때 어시장 옆에 방을 구해서 살았다.

건물 밖을 나가면 바로 어시장이라 종종 들려서 미더덕, 반건조 생선, 반찬거리와 지리산 자락에서 온 곳감도 사곤 했다. 봄에는 도다리썩국도 맛나게 먹었다. 사실 한창 코로나 시기에 창원에서 일을 해서 외국에 못 나가고 근처에서 국내 다이빙만 할 때였다. 그래서 어시장에 안 가도 다이빙 배에서 뿔소라, 물고기를 즉석에서 회로 먹곤 했다. 난 사실 그린 잠수부 스타일이라서 바닷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잠수부가 찾아서 오면 같이 먹었다.

난 바닷속을 경험한 이후로는 다른 교감의 세계를 느끼게 되었다. 한 번은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는 돌문어 두 마리를 버디가 잡았는데 나도 옆에서 거들다가 문어의 다리를 잡게 되었다. 문어의 다리는 육지에서 느껴 본 촉감하고는 전혀 달랐다. 문어의 살은 바닷속에서는 중력의 힘을 덜 받으면서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다.

사실 나는 문어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문어 집에 두 마리가 같이 있을 때는 교미의 시기라서 건들면 안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같이 간 버디는 두 마리를 다 잡

아버렸다. 나는 돌문어에게 매우 미안했다. 나는 아직도 우리 인간이 사냥을 자연의 법칙을 거르면서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항상 바다가 나에게 보내는 감정의 신호를 읽으려고 노력한다. 바다가 나를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오로지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무사히 내가 육지로 나올 수 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 해변에 1미터가 넘는 파도가 칠 때면 내 맘속에 흥이 솟아난다. 특히 집채만 한 큰 파도가 해변을 때릴 때면 정말 바다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바닷속에는 신비롭고 오묘한 여러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들은 나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가져다준다.

몇 주 전 나의 꿈에 바다 생명체가 나타났다. 한 건물 안에 거실에 큰 대야에 작은 거북이와 물고기가 안에서 있었다. 물이 없는 거 같아서 따뜻한 물을 모르고 부었는데 이들이 살아있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무 더워서 엮는지 갑자기 거북이와 물고기가 대야에서 나와 화장실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고 덩달아 같이 걸어갔다. 화장실에 들어가 내가 세면대 거울에 췄을 때 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았다. 갑자기 토가 나기 시작해서 토를 했을 때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내 입안에서 밖으로 쏟아졌다. 그리고 다시 연이어 토를 시작했을 때 검은색과 붉은색을 뱉어냈다. 그랬더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거북이와 물고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제 제사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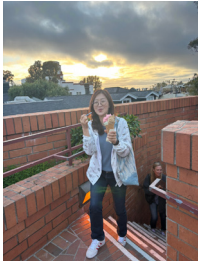


그리고 난 꿈에서 깨었다. 오묘한 꿈이어서 의미를 찾아봤다.

기묘하게도 내가 토해 낸 검은색과 붉은색은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제사장 복의 전통 색깔이었다. 나에게 과거를 기리는 것이 끝났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느꼈다.

난 아직 다이빙이 100 켤을 못 채웠다. 70-80 켤 사이인데 나머지 30 켤을 채우면 바다를 아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년 전 필리핀의 먼바다에서 잠수로 내가 만든 조각을 바닷속에 놓는 퍼포먼스를 했다. 예술 작품을 모든 사람이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모두가 의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작품은 먼저 작가의 필요로 탄생된다.

바다를 왜 우리 인간이 항상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는지는 우리 인간의 기원을 찾는 연습과도 같다고 본다. 우리가 물의 생활이 친숙해진 만큼 바다를 이해하는 과정은 인간에게 힘들다. 그렇지만 난 내가 바다에서 왔다고 바다와 하나라고 믿는다. 그리고 바다를 통한 예술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는다. 🐷



김혜현

4년차 갤러리스트

가발 파는 갤러리스트

내가 운영하고는 있지만, 갤러리 대표라 불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지인들은 나를 OO 쌤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혼자 일하는 갤러리스트라고만 소개하는 편이다. 실제로 새로운 손님이 갤러리에 찾아오거나 아트페어가서 부스에 서 있으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표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러면 나는 급 기분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를 외칠 뻔하다가. 참는다. ‘그래, 아직 젊어 보이는구나.’ 그렇게 신나게 3년 반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다가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남편 직장 해외 발령 때문이었다.

한참 운영 중이던 갤러리를 그냥 닫을 수가 없었다. 이미 공간을 이용하는 북클럽 멤버들이 많이 있었고,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 작가들도 기다리고 있었다. 갤러리스트 없이 전시해도 괜찮겠냐는 확인을 받고 전시를 열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작가와 기획자가 함께 운영하는 프로젝트 공간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7개월이 지났다. 아직은 잘 운영 중이다. 전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우리 단체 대표님 덕분이다. 부디 대표 직함만이라도 받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운영을 너무 잘하신다. 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닐까. 갤러리 문을 닫지 않아도 돼서 너무 기뻐다.

미국에 온 지 두 달이 지나서 문득 깨달았다. 일주일에 한 번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영어수업2시간, 그리고 갤러리 운영하면서 얻은 온갖 몸의 고장을 치유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을 갈 때를 빼고는 영어를 쓸 일도 미국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다. 미국에 와서 당당히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아티스트를 만나 전시해보리라는 굳은 다짐은 점점 흐려졌다.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는데 누가 만나 전시하겠다는 말인가. 어디가서 일이라도 하면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할 것 같았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같은 속의 권사님께 물어봤다.” 제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디 일할 곳이 있을까요?” 두 눈이 커지신 우리 권사님이 고개를 몇 번 두리번 거리더니 누군가를 불렀다. 머리를 예쁘게 포니테일로 묶으신 집사님 한 분이 달려온다. “여기 집사님이 일할 곳 찾는다는데 가게에 사람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비자 상태도 살펴봐야 하고 워킹 퍼미트도 필요하다. 화요일에 일할 가게에 가서 매니저 면접을 보며 나의 비자 상황을 알려줬다. E2비자라 고용되는 일을 할 수 없기에 E2S 비자로 상태를 바꾸어 오면 받아 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대대적인 단속으로 잘못 걸리면 바로 잡혀가는 엄격한 상황이었다. 어떤 곳은 이유 없이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터라 대부분의 불안정한 신분의 이민자들은 일터에도 안나오고 숨어있는 분위기였다. 폭풍 웹검색으로 E2S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내 이민국에 이메일을 보내고 일주일 안 걸려서 승인 메일을 받았다. 이제 바로 일할 수 있다. 일자리를 알아본 지 일주일 만에 취업이 되었다. 미국에서 처음 일해 보는 거라 은근 기대가 되었다.

교회 권사님들이 걱정하신 게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게의 손님들이 대부분 흑인이라는 것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흑인들을 만나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런 훌륭한 기회가 생기다니!’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애틀랜타는 아트페어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었다. 작년에 아트페어가 처음 열렸다. 미국에 먼저 가 있었던 남편에게 부탁해 아트페어가서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다. 예상대로 흑인 아티스트들이 많았다. 꼭 함께 전시해보고 싶었다. 나도 그 작가들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흑인 문화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건 그냥 그들의 일부 겉모습 이



우리 동네 산책길에 찍은 사진

뷰티 서플라이 샵에는 다양한 헤어 관련 제품들이 있다. 가발은 물론이고 헤어익스텐션 이라고 부분적으로 머리를 붙일 수 있는 제품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종류가 많았다. 게다가 신제품이 계속 들어오면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빈번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못 알려주게 되고 손님들은 시무룩해져서 돌아선다. 헤어 프로덕트- 샴푸, 컨디셔너, 헤어로션, 헤어 오일, 헤어 마스크, 헤어 젤, 스프레이, 무스, 왁스, 가발 붙이는 본드 스프레이

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 고민을 한 나에게 종일 그들을 만나고 소통할 기회가 생기다니 이건 분명 엄청난 기회였다.

내가 일하게 된 가게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뷰티서플라이 샵이다. 이쪽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뷰티서플라이샵을 많이 운영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미국 뷰티 서플라이 샵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정말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일을 시작했다. 정말 대부분의 손님은 흑인들이었다. 왜 그런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나의 무지는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등-는 그들의 머리를 꾸며주고 지켜주는 것이다. 머리에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구나 하는 감탄을 매일 했다. 흑인들은 머릿결이 건조해서 쉽게 상하기에 계속 보습 해주고 관리를 해주어야 하며, 한국 사람들처럼 매일 샴푸했다가는 남아나는 머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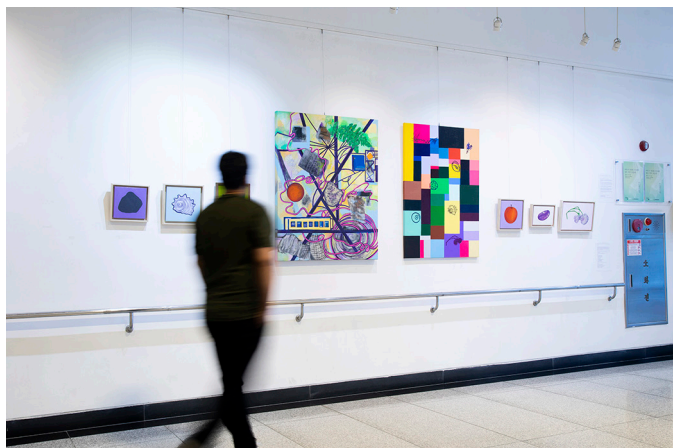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한국인 이거나 대부분 인근 지역 주립대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었다. 젊은 친구들과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궁금하면 계속 질문을 하는 편이었고, 웃기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영어로 한두 마디 하면 까르르 넘어가면서 웃어줬다. 함께 일하던 M 양은 3년 동안 이 가게에서 일해서 거의 모르는게 없었다. 작년에 마케팅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한 상황이라 본격적으로 직장을 찾고 있다고 했다. 40대 아줌마에 영어도 못 하는 나에게 일을 가르쳐주느라 며칠을 진땀 뺐는데 한 번도 힘들어하지 않고 친절하게 도와줬다. 그녀는 최근에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어 떠났다. 그녀를 비롯해 여기서 만난 흑인들은 대부분 과도하게 익스큐즈미와 아임소리를 연발하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다. 매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땡큐, 아임소리, 익스큐즈미.

그리고 성별과 상관없이 흑인들의 외모는 진짜 다르다고 생각했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꾸며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함께 일하는 집사님도 몇 년 동안 봐왔지만 진짜 다르다고 했다. 그 ‘무엇’에 대해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연구해 보고 싶다. 그냥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예술적이고 영적으로 달라 보였다. 나는 모든 것을 예술적인 관점으로 보는 직업병이 있다. 가끔 덩치가 큰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의 거대한 몸 그 자체가 예술적인 에너지를 품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차차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다.

올해 5개월간 이 가게에서 일을 했다. 감사하게도 2주에 한 번씩 아르바이트비를 받아서 한국에 송금했다. 그 덕분에 초대전 하는 작가님들을 더 지원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갤러리스트가 자리에 없으니 작품 판매가 쉽지 않았기에 작품 운송, 설치비, 전시 촬영, 영상 제작



재작년 전시장에서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나



나 없이 올해 진행된 한국에서의 지역 공공전시 단체전 전경

등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에 보탬이 되었다. 3년 반 동안 갤러리 운영하면서 코로나 팬데믹도 지나왔고, 경기침체에 더불어 계엄 상황까지 맞닥뜨리면서 전시장 운영이 점점 힘들었다. 내가 미국으로 이사 온 이후 전시장 운영 비용은 북클럽 멤버들과 프로젝트 비영리단체 멤버들의 후원으로 잘 해결이 되고 있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차곡차곡 쌓인 은행 빚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했다. 열심히 가발을 판 덕분에 꽤 많이 도움이 되었다. 허를 끝끝 차면서 당장 갤러리 그만두라고 문 닫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이 마흔에 어렵게 결정한 나의 길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뷰티 서플라이 샵에서 일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얼른 그만두라고도 했다. 5개월간 일하면서 새롭게 배운것이 정말 많다. 1, 1B, 2, 4, 27, 30, 33, 130, 350, 425, 530, 613 등의 숫자의 의미, loc, twist, braid, weave, bulk, ponytail, bang, bun, french curl, boho braid가 무슨 뜻인지도 안다. 왜 그렇게 머리에 본드를 발라가면서 가발을 바꿔쓰는 것인지, 돈 생기면 신이나서 가발 사러 오는 사람들, 샴푸, 컨디셔너, 젤, 왁스, 릴렉서 등 나도 감히 못 살 것 같은 가격의 헤어 제품들을 한번 올 때마다 엄청 사 가는 사람들, 한 팩에 100달러에서 200달러 가까이 하는 헤어 익스텐션 제품을 사 가서 미용실에 가서 또 돈 내고 붙이는 그 사람들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다. 나의 이해가 정확한지 계속 해서 검증해야 하는 문제도 남았지만,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공감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설득이 되는 어떤 지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전 까지는 영화 속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주인공의 모습이나, 토니 모리슨의 소설 빌러비드 같은 참혹한 스토리 속의 흑인들을 만나 왔다면, 미국에 와서 일하면서 만난 그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이웃이 되었다.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어떤 머리색을 선호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고, 함께 일하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도 들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표정, 눈빛에서 읽히는 정치적 성향, 성질 급하고 종종 막 말하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그들만의 품위도 알게 되

었다. (물론 품위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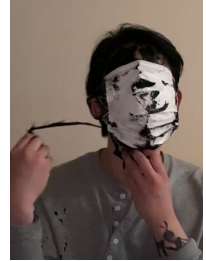
나는 카운터에서 계산하면서 손님이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면 “아이 러브 유어 헤어” 라고 한마디 한다. 그러면 그 손님들은 수줍게 웃으면서 “땡큐~”라고 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사람들은 흑인 동료들이 새로 머리고 왔을때 예쁘다고 한마디 해주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예쁘다고 하는 그 말에 진심이 담겨있다면 상대방이 모를 수가 없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종종 머리를 예쁘게 바꿔서 오면 “와 너 머리 달라졌네, 잘 어울린다.” 한마디 해주면 신이 나서 어떻게 했는지 한참을 이야기한다. 열심히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움츠려 들곤 한다. 나는 그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30대부터는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했다. 나는 무섭고 귀찮아서 귀도 안 뚫었는데, 수술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한 열정 아닌가 싶었다. 내 여동생이 쌍꺼풀 수술을 두 번 하는 거 보면서 깨달았다. 자기 생활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외모도 잘 가꾸는 것 같다. 우리 가게에 오는 어떤 손님들은 머리 색 하나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진다. 1과 1B의 차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은 알리라. 어정쩡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게 눈에 딱 보인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겉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작은 것에 성실하고 세심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다.

“가발을 파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가발만 파는 게 아니라 쓰레기도 치우고 바닥 청소도 하고 함께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꺼리는 잡다한 일은 다 도맡아서 한다. 나는 어린 친구들에게 그런 일은 시키고 싶지 않은 평범한 아줌마가 되었다. “이 아줌마가 다 해줄 수 있어. 걱정 마 나에게 맡겨. 그리고 너희들은 꿈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 꽤 큰 자동차 회사의 마케터로 채용되어 떠나는 M 양에게 농담처럼 말했다. “M, 꼭 끝까지 올라가, 농담으로라도 여기 다시 오겠다고 하지 말고.” 이 가게는 시급이 적어 여기서 일해서는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해 없기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은 그림보다 가발을 더 많이 팔고 있지만, 언젠가 찾아 올 반전을 꿈꾸며 일상을 살아가겠다. 치열하게 달려온 지난 4년을 되짚으며 앞으로의 행보를 가다듬는다. 

바닥화된 파인애플을 신어라

김 희 진

노동자



바닥화된 파인애플을 신어라. 새 신발처럼 보이고 오래된 상처처럼 말하라. 끈은 없으니 묶이지 말고, 묶은 척 하라. 규격도 있지않은 것에 사이즈표를 붙이고, 표만 믿게 하라. 그러므로 단맛이 발바닥에서 증발한다. 효과 없음이 효과다효과고효과가 세 번 외라.

견지 말고 걸은 기록만 남겨라.

목적지는 없는지도를 접어 자기소개서로 쓴다.

누가 묻거든 : 이 신발은 나를 데려가지 않고 대신 여기를 두껍게 만든다. 두께는 성과 ; 얇을수록 진심 같고, 두껍을수록 안전하다.

박수는 사양하되, 타이밍은 저장하라.칭찬은 반납하고, 광택만 유지하라. 넘어지면 좋다. 멍은 인증이다.여긴 나의 압흔.

읽히든 말든, 오늘의 효과는 효과 없음.

「無에 달고 有로 솟아 無로 돌아가는 이 구멍, 이 복도, 이 숨」

■ 모두 뛰어라! ■

■ 끝에서 태어나! ■

■ 시작으로 죽어라! ■

$S(t_0) = k \cdot \ln(\Omega_0)$

$S(t_1) = -\infty \Rightarrow \text{세계} \therefore \text{재구동}$

『 人 人 人 人 人 』

ㄴㄴㄴㄴㄴㄴㄴㄴㄴ

』 人 人 人 人 人 』



▲ ▲

| (門開)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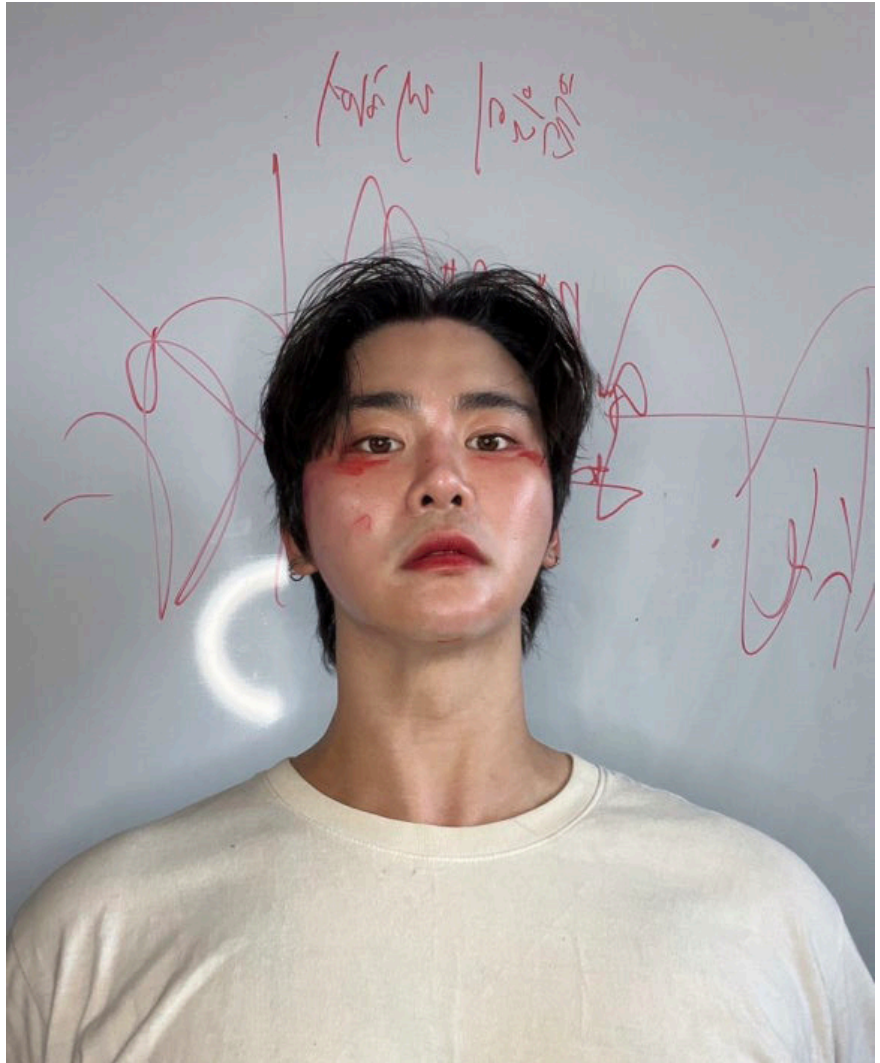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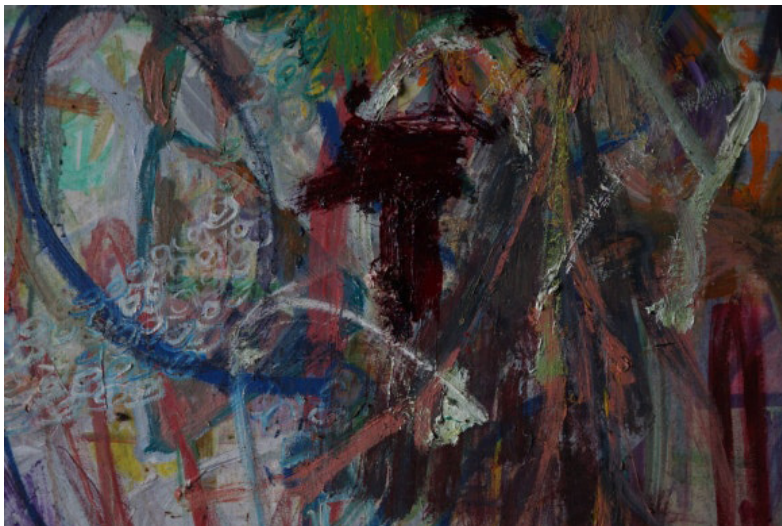
† 육신 $\rightarrow 0$ † 혼백 $\rightarrow \infty$

편집자 주 : 상단의 내용은 본래 원고의 일부였으나 이모티콘과 호환 폰트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메모장으로 대체합니다.









1

밤의 바늘 끝에 걸린 종이 —그것은 아직 젖은 살결인데— 을 겨우 뜯어올린다. 서로를 향해 격자처럼 미세하게 미끄러지는 숨, 한낱 한시에 눌린 날짜의 껍질이 지느러미처럼 떠 있다. 모난놈들 다시 한데 모으려니 반발이 심하다. 모여서는 흩어지고 흩어져서는 모이며 오래된 적란운처럼 불온한 지느러미를 키운다. 한낱 한시에 태어난 인쇄물인데 견딜 수 없는 타성이 각자 있나보다.

2

모은다는 것—천지창조의 일곱째 날 저편, 아직 이름 붙지 못한 폐허를 엮어 한 무더기 재에 앉히는 일. 나는 여섯째 날의 잉어로 태어난 활자들의 부스러기를 주워다 한 줄로 세운다. 그러나 줄은 곧 고리로, 고리는 곧 소멸의 螺線(라선)으로,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엔트로피는 메아리 없이 표피를 납치하고, 종이의 입김은 “붙잡지 마라, 나는 이미 기신체(氣神體)의 수위 아래로 달아났다”고 중얼거린다.

3

그래, 박제는 실패다. 나는 실패를 다시 박제하여 둥글게 만다. 모난 장(章)을 둥글린다고 모난 뜻이 사라지진 않는다. 오히려 모서리마다 숨겨진 歲月的 송진이 어둠을 굵고, 굵힌 어둠은 무수한 눈에 피를 묻힌다. 그러니 나는 묶되 매듭을 느슨히, 맞닿되 빈틈을 품어, 각 선언이 자기 잠을 꾸게 한다. 그리고 묶인 자리마다 미세한 숨구멍을 뚫어 두었다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모를 폭발을 위한 길, 혹은 귀환을 모의하는 귀소본능의 싹짓줄 



방축도 섬해진미 투어



오 종 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나름 국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봤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섬에 들어가본 적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작은 섬에 들어가 지낸다는 것은 사실 “삼시세끼”같은 예능 프로그램 정도로 만족하던 것이었다. 편의점 없고 여름에 모기 많을 것 같은 섬에 들어갈 필요가 굳이 있을까. 그래서 이번 방축도에서 진행된 <섬해진미>에 참여하기까지 사실 약간의 고민이 필요했다. 방축도는 군산, 고군산 군도에 속한 섬 중 하나이다. 방축도는 폭으로 치면 약 2~3km정도 되려나 싶은 매우 작은 섬이다. 군산에 장자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한다. 장자도 선착장까지는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이어져 있으나, 장자도까지는 차를 끌고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치면 방축도가 가까운 거리라고는 하기 어렵다.

섬해진미의 컨셉은 섬에 가서 백패킹과 함께 어촌의 맛을 느끼자는 것이었는데, 솔직히 홍보물에 정보가 많지 않아서 ‘가서 사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물론 갔다 온 지금은 꽤 만족하긴 하였으나 홍보물은 좀더 신경 썼으면 하는 느낌.

나와 일행은 백패킹이 처음이라 고민이 많았다. 짐을 얼마나 싸야 하나. 25리터 등산 가방을 가득 채우고선 벌써 짐이 이렇게 무거운데 너무 욕심을 부렸나 싶었다. 나중에 방방축도 가는 배에서 보니 제대로 백패킹을 하는 이들은 50리터 가방을 채우고도 넘치는 짐을 거뜬히 업고 다니더라. 해당 배는 방축도 이외에 다른 섬에도 멈추는데 큰 짐을 짊어진 백패커들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남녀 가리지 않고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백패킹 장비들을 싣 백패커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진1_ 처음으로 쓴 백패킹 장비. 뭔가 어설퍼 보인다면 맞다.

캠핑장소는 이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데크였다. 크기가 크진 않아 백패킹에 적당한 크기였는데, 한편으로 오토캠핑 같은 건 원래 불가능하였다. 하긴 차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지. 그래도 데크는 깔끔했고 화장실도 멀지 않아서 나쁘지 않았다.

자리를 얼추 잡고 첫 점심을 먹으려 모였다. 마을회관 1층에는 식당이 위치해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서니 벌써 기본 메뉴가 깔려 있었다. 이름 모를 생선튀김과 오징어순대, 그리고 아귀 같은 물고기탕이었다. 이 이후로도 매끼 생선튀김 혹은 구이가 나왔는데 정말 맛있었다. 해산물을 엄청 좋아하는 타입이 아님에도 매끼 먹은 생선들이 대체로 훌륭하였다. 이날 탕

배는 다른 섬을 경유하며 30분 정도 이동하고 나서 방축도에 도착하였다. 방축도의 입구는 알록달록한 테트라포트로 꾸며져 있었고 트래킹 코스나 볼거리 등이 소개된 안내판도 있어서 관광객이 있나 보다 싶었다. 짐을 트럭에 싣고 10여분 정도 걸으니 우리가 머물 숙소가 나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회관이라 한다. 콘도와도 비슷한 형태인데 진짜 마을회관 역할도 하면서, 문화센터 역할도 하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에게 어촌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고 한다. 후에 이야기 하겠지만 바다낚시를 위한 낚시대나 개막이 체험을 하기 위한 장화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사진2_ 방축도의 알록달록한 방파제



사진3_ 매 끼마다 생선 구이(혹은 튀김)을 먹을 수 있었다.

신선한 통 오징어 찜에 조기로 추측되는 생선 구이

에 나온 물고기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못하였는데, 약간 멀건 국물에 별 건더기도 없이 거무
 퍽퍽한 생선만 있길래 살짝 조심스러웠는데, 한입 뜨고나니 살은 무척이나 쫄깃하고 간도
 딱 맞았다. 진짜 어촌의 요리란 이런 것인가. 메인 반찬과 탕 외에 나머지 반찬 몇 가지는 직
 접 가져다 먹는 방식인데, 해초와 같은 해산물도 맛있었고 그 외에도 나쁘지 않은 반찬들이
 었다. 화려함보다 재료 본연의 맛과 승부하는 듯한 맛이였다.

식사를 마치고 준비된 코스인 바다낚시를 하러 갔다. 원래는 고동파기 등의 체험도 포함되
 어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바로 낚시를 한다고 한다. 마
 을회관에 낚시대가 준비되어 있어 하나씩 받고 바닷가로 향했다. 회관 건물에서 1~2분 비

탈을 내려오면 바로 바다이다. 이 바다는 부둣가의 바다와 달리 작은 해변과 험한 바위들로 구성되어, 간단한 해수욕과 낚시를 하기에 좋아 보였다.

그동안 남의 낚시대를 종종 잡아볼 일이 있었지만, 낚시를 통해 재미 본 적은 마땅히 없었다. 심지어 나는 친구들과 간 가두리 양식장 낚시터에서도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같이 간 일행이 낚시가 처음이라, 나름 건방 떨면서 “낚시란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너무 힘 빼지마”라고 말하기가 무색하게 졸복(작은 복어)을 낚는다. 찌를 멀리 던진 것도 아니고 잠깐 담겼을 뿐인데 잡히더라. 내가 무안해 하고 있으니 낚시가 이리 쉬운 것이냐며 묻는다.

사진4_ 처음으로 성공한 바다낚시



이윽고 내 낚시대에도 부르르 묘한 진동이 온다. 핸드폰 진동이 온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맛이 있었다. 릴을 감으니 마참가지로 졸복이 달려온다.

꾸억꾸억 위협소리를 내는 졸복을 허겁지겁 가져온 주머니에 넣으며(원래 고둥을 따려고 면포를 준비해왔다) 다음 미끼를 바늘에 꿰다. 낚시가 이리 재밌는 것이었다니! 사실상 처음으로 생선을 낚아보기에 순식간에 흥분하였다. 초심자의 행운이라 하였던가. 이윽고 계속 졸복을 낚는다.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다른 이들이 숙소로 복귀하였음에도 이 졸복 낚는 재미를 멈출 수 없었다. 결국 주최측으로부터 철수 안내를 받고서 자리를 뜨게 되었다. 이날 우리의 첫 낚시는 두어 시

간동안 졸복만 8마리를 낚았다. 마지막에는 낚시 바늘 두개에 졸복 두 마리가 걸리는 행운을 짜릿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 졸복을 어째야 하나 했는데, 감독 겸 나온 어촌분이 이 시기 졸복은 다듬기도 어렵고 먹기도 별로 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다 풀어주게 되었다. 이날 이후 나는 낚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한 낚시대를 구매하고, 이때의 재미를 잊지 못하여 캠핑과 낚시를 같이할 곳을 알아보고 있다.

날이 진짜 덥기는 더웠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살짝 늘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백패커들은 결국 너무 더워서 마을회관에 에어컨을 틀고 쉬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나도 결국엔 못 버티고 마을회관에 대피하고 있던 중, 본 프로그램의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자신들도 현재 많이 더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며, 원래는 가을에 추진하려던 프로그램을 먼저 테스트 성격의 팸투어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쉬운 것도 많고 또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쓴다고. 그래서 그런지 더위가 상당한데 대표를 포함해 직원들은 참여자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진5_ 초보 낚시꾼. 신발을 너무 위험하게 신었다.



저녁식사는 성대하였다. 일단 식당에서는 생선티김과 멍게회가 나왔다. 매우 맛있어 보이는 활어회도 함께 나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음식 하나하나가 임팩트가 강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한 상이 돈 10만원은 넘을 것이었다.

식당 밖에서도 갑오징어와 바비큐가 숯불에 구워지고 있어 인상적인 저녁식사는 계속 되었다. 다만, 저녁식사 이후 ‘개막이 체험’이라는 것이 있으니 술은 적당히 드시라는 조언에 다들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는 느낌이었다. 또 섬에 백패킹으로 오게 되니 진하게 먹기보다 깔끔한 대화 위주의 자리를 갖게 되는 것 같았다.

이때 주류를 함께 하였는데, 텐트를 근처에 쳤거나 식당 테이블을 같이 쓴 사람들과 한 잔씩 나누게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백패킹에 경험이 없던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들이 여행을 즐기는 경험자들이었다. 나와 일행도 경험자 섹션으로 추첨이 된 것 같았다. 소주

사진6_ 더위에 지쳐있는 모습. 결국 이틀째에는 많이 지치고 말았다.



한 잔씩 돌아가니 그때서야 서로 자기 소개를 하였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자신들의 여행담을 한차례씩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었다.

특히 내가 있던 테이블에는 이러한 백패킹 경험이 무척이나 많은 30대 부부와, 또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등반 경험이 있는 중년 부부의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들 백패킹으로 다양한 지역, 국내외 섬과 오지를 찾아 다니며 여행을 다닌다고 하니 멋지게 느껴졌다. 그들도 자전거 여행을 주로 다닌다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자전거 캠핑에 호기심을 보였는데, 이후 헤어지기 전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며 서로

못다한 여행 기록들을 볼 수 있었다.

자 드디어 대망의 개막이 체험. 개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저 의문형으로만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직원분들과 어촌계 분들의 대화를 통해 이것이 그물을 미리 쳐놓는 어떤 어업방식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 글을 쓰며 찾아보니 방축도 어촌체험의 중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저녁식사를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적당히 야심한 시간이 되자 이제 개막이 체험을 하러 나간다고 한다. 안전조끼와 긴 장화를 지급받고 바닷가로 나섰다.

개막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두리 어업방식이었다. 방조제처럼 높게 쌓은 돌벽(한 3m 정도는 되어 보였다) 가운데 적당한 틈이 있고 이것을 그물로 막아놓는 것이다. 밀물이 되면 이 벽 이상으로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질 때 이 그물에 물고기들이 걸려 갇히는 것이다. 우리가 도착한 10시쯤에는 이미 물이 다 빠져나가서 빨밭이 되어 있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빨 위에서 퍼덕이고 있었다. 처음보는 광경이었는데 조금 기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다.

물고기라 해서 조그만 물고기가 아니라 대부분 성인 팔뚝 만한 크기의 농어, 송어와 같은 물고기들이었다. 그물망을 하나씩 주더니 주우라고 한다. 주워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어촌계에 반납하면 다음날 아침 식사에 나오는 것이라고.

나는 내가 직접 먹어볼 생각으로 송어를 집어봤는데 그 힘이 장난 아니다. 목장갑을 썼는데도 생선을 쥐려고 하면 매우 강한 힘으로 몸부림쳐 빠져나가기 몇 차례였다. 새삼 음식으로만 조우하던 물고기를 살아있는 체로 만나니 그 생명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던 것 같다. 바닥에서 주우면 된다지만 물고기들 힘이 워낙 세서 여기저기 놀라는 소리에 물고기들이 꼬리짓 하며 바닥을 치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상당히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사진7_인상적이었던 개막이 체험 사진

나는 일단 내가 잡아먹을 송어 2마리에 농어 2마리, 그리고 친해진 어른신이 하나 집어넣어 주신 작은 장어를 챙겼고, 그 외에 사람들도 물고기를 열심히 주워 준비된 트럭에 실었다. 우리처럼 먹을 생각으로 챙기는 사람은 얼마 없어 보였다.(이미 방축도에서 해산물은 충분히 먹고 있으니 그런가.) 쌀가마 같은 크기의 망으로 몇 망이 트럭에 실렸는데 그 안에 물고기들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어촌에 살면 해산물은 실컷 먹을 수 있겠다고 같이 간 일행이 감탄하더라.

이 직후에는 다시 반대쪽 바닷가로 넘어가 성게와 해삼을 잡는 투어를 하였는데 나는 이미 피곤에 절어 있었고 시간이 늦어, 사람들을 따라가기 정도만 하였다. 아까 낚시하던 바닷가

를 후레쉬를 비치며 탐색하는 것이다. 바위 틈 사이에 작은 말미잘이며 성게 같은 것들이 있었고 잘 보면 해삼도 있을 것이라 한다. 우리 일행은 해삼은 잡지 못하고 작은 말뚝성게만 몇 마리 주워 그 자리에서 깨 먹을 수 있었다.

성게를 깨니 바로 노란 속살이 나온다. 해산물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 처음엔 거절하였으나, 초밥집 가도 이런 우니는 먹을 수 없다는 말에 한 입 먹게 되었다. 입에 넣자마자 넘치는 바다의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성게를 많이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진한 크림치즈와도 같은 여운이 입안에서 강하게 소용돌이 쳐 그저 감탄만 나오더라.

성게 맛보기 체험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 어촌분들이 쓰시던 장비를 빌려서 아까 챙

긴 생선을 다듬어 보았다.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어촌계 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 머리와 지느러미를 떼고, 비늘을 긁어내고 배를 따 내장을 꺼내 보았다. 이 생선은 다음날 캠핑에서 숯불구이로 맛있게 구워 먹었다.

사진8_ 처음으로 해본 생선 손질



한 여름 섬에서의 텐트 숙박은 썩 쉽지 않았다. 밤에도 더위는 가시질 않았는데, 다행이라면 그 때문인지 모기는 없었다. 주최 측에서는 마을회관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거기서 주무실 분은 주무시라 조치해주었는데, 내 댕에는 백패킹 세팅으로 왔으면 텐트에서 자야지 하고 잠을 청했다. 그리고 너무 더워서 몇 번을 깼는지 모른다.

결국 아침을 엉망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아침식사는 푸짐한 전복죽이었다. 따뜻하면서

드디어 집을 싸고 돌아오는 배. 전날 저녁으로 친해진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나는 결국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다행히 배가 편도인 것인지 갈 때는 다른 섬을 경유하고 시간이 조금 걸려 어느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번 방축도 <섬해진미>는 정말 행사의 중요 메리트를 그대로 제목에 담았다고 본다. 어촌 계분들이 준비하신 푸짐하고 신선한 해산물의 향연이었다. 하나하나가 어촌계 분들이 매일 드시는 듯한 느낌으로, 화려하진 않아도 본연의 맛에 충실했고 매 한끼가 술 한잔을 부르는 구성이었다. 대체로 이런 행사들이 그렇듯, 프로그램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나 신선한 식사는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로컬푸드 행사를 간다면 간간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식자재 하나만을 주구장창 밀고 나간다가나 관광식품을 대표식품이라고 올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곳은 애초에 시장은 커녕 편의점도 없을 뿐더러(섬에 작은 슈퍼가 하나 있던 것 같긴 한데 보지를 못했다.) 음식 하나하나가 요리였기 때문에 매끼에 그 섬의 느낌을 담아낸 것 같았다.

프로그램 역시 좋았다고 본다. 바다낚시는 낚시에 자신이 없었던 나에게 자신감을 불러주었으며, 낚시 스팟이 좋았던 것인지 대체로 참여자들에게 소소하게 낚는 즐거움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내 일행도 낚시하느냐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느꼈을 정도이니. 개막이 체험과 성게 줍기도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개막이 체험은 나에게 문화충격과도 비슷할 정도의 느낌이었다.

로컬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에서 로컬을 느끼는 것, 방축도를 느끼는 것에는 이만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글에서도 언급하듯 나는 이러한 로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 로컬을 기억하게 만드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바닷가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서 그런지 특색 있는 어업방식, 그리고 물고기의 강한 생명력을 경험해보며 너무나도 행복해 했던 것 같다. 이런 지점에서 체험 프로그램 선정 자체는 매우 좋았다고 본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체험들이 무조건 완벽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있으니, 안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게 나도 액티비티를 즐기는 만큼 당연히 야외 활동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 가령 내가 메인으로 하는 자전거만 해도

넘어져 다칠 확률이 있지만 굳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어떤 활동의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당연하다 싶은 이야기로 흥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바닷가 체험은 확실히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었다. 먼저 바다 낚시의 경우 물 때가 맞지 않았는지 서서히 물이 차오르던 상황이었다. 말한 대로 낚시하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 물 들어오는 것을 미처 몰랐다가 뒤늦게 깜짝 놀라게 되었다.(밀물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가 이제서야 이해되더라.) 참여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모인 게 아닌, 이곳 저곳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칫하면 사고 날 수도 있겠는걸’ 하고 우려되는 지점도 있었다. 또한 방축도의 바닷가는 험하고 미끄러운 바위들로 둘러 쌓여 있었는데 야간 체험들은 조금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본 체험에 참여할 때 여행자 보험이 필수였는데, 그러기에는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듯 싶었다. 아무래도 내가 행사 주최측의 입장이기도 했으니 더욱 그리 느끼는 것이리라. 이런 지점들이 이 행사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던 것 같기는 하다.

정리하자면 방축도에서의 체험은 매우 좋았다. 위에서 말한 단점은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고, 참여자들은 사실 수많은 장점들을 즐기고 향유하며 방축도를 기억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본 프로그램의 취지는 군산시가 추진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의 일환이라고 들었다.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 언급한 대로 섬과는 인연도, 관심도 없었던 나에게 새삼 국내 섬 여행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만약에 다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면? 분명 참여할 것이다. 물론 아주 더운 여름이라는 변수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처음으로 느끼는 낚시의 손맛과 풍부한 바다음식의 향연.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개막이 체험을 통해 나는 방축도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섬 여행을 기약할 것이다.





한량윤씨

게으른 창작자

철거-천장

시골집을 비우면서 가장 먼저 욕심이 난 부분은 서까래였다. 내가 살던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들의 대부분 천장은 표준 높이 (약2m30cm정도)의 판넬로 정돈되어 있다. 한편으론 어떤 이의 집을 머리 위에 올려두고 어떤 이의 집은 발로 밟고 다니는 샌드위치나 탑의 형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옥은 중앙 용마루대를 기준으로 대청으로 서까래가 이어져있다. 정확히 잘 알수는 없지만 한옥의 집은 기둥과 기둥, 그리고 서까래와 잇는 들보와 추녀가 역학적으로 힘을 받치고, 버티고 있다고 느껴졌다.

어찌 되었든, 나의 선택에 늘 주요한 점은 ‘아름다운가’ 였다.

하지만 서까래는 대청마루와 밖의 일부만 노출되어 보이고, 방으로 쓰여진 곳은 모두 낮은 높이로 막혀 있었다.

나는 집 전체의 서까래를 보일 수 있도록 무조건 다 뜯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았다.

3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 기억이다. 그 날도 여름방학을 맞이해 이 시골집에 놀러 왔다. 정신없이 한 참을 놀다가 보면, 모기향 냄새가 솔솔 난다. 나는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깔아 준 ‘아무대나’ 이불에 눕는다. 요즘같이 여름이 사납지 않았던 시원한 여름밤이다.



*대청마루 위 서까래의 모습

바뀐 잠자리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 시각, 눈만 감고 가만히 누워있다보면, 오른 쪽엔 할머니, 왼 쪽엔 할아버지가 낮은 음성으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으신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그렇게 잠에 빠져 갈 때쯤, 머리 위 천장에서 ‘두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마치 도망자의 발걸음처럼, 쫓기는 작은 발자국 소리였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잠시 대화를 멈추었다가 소리가 잠잠해지면 또 자연스럽게 하던 말들을 이어 가셨다. 그 반복되는 소리와 두 분의 이야기는 풀벌레 소리처럼 희미하게 사라졌다.

대략 철거를 해야 하는 천장과 벽을 기준을 삼았고, 철거 과정에서 부실해 질 수 있을 곳을 예비해서 집의 보강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기로 했다. 철거와 보강을 같이 진행하되

서까래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다. 한 업체는 그래도 이 지역의 낡은 주택 지붕공사를 주로 해왔다고 했고, 대목수인 스승을 따라다니며 크고 작은 한옥 리모델링 공사를 경험한 분을 만났다. 하지만 우리 집을 보여주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과 작업의 스타일이 달라서 죄송하지만 할 수 없을 것 같다”

예전에 우리와 같은 오래된 한옥집을 철거, 리모델링을 맡은 적이 있다고 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천장을 뜯어 냈더니 뱀의 허물도 있었고 쥐의 사체와 똥을 뒤집어 쓴 적이 있었다며, 도저히 다시 하라고 해도 하기 싫다는 솔직한 답변을 덧 붙였다.

‘순간, 30년전에 내가 이 방에 누워있을 때 머리위로 쥐들이 달리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했다면 아무도 천장을 뜯으려고 하지 않았겠지..’

사실, 가장 겁이 나는 일이었다. 100년이 넘는 천장을 뜯는 일 이라니..! 별의 별 상상력이 더해져, 머릿 속 에서 공포의 시나리오를 몇 편이나 재생했다. 하지만 서까래를 가리고 있는 이 낡은 천장 따위를 참을 수가 없었다. 아빠도 아빠의 고향 친구분들도, 또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한 업체의 사장님들도 모두 말리는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을 때, 남편만이 슈퍼맨처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당신이 원하는 그 서까래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예상했지만 시야를 가릴 만큼 엄청난 먼지가 천장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내려왔다. 안전모와 방진 마스크로 대비를 했지만 미세한 먼지까지 막을 길이 없다. 그 중심에는 남편이 있었다. 솔직히 나는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었고, 나는 보호받는 공주님이었다.

나 때문에 땀이 범벅이 되어 새까만 먼지를 뒤집어 쓴 남자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고 전쟁터에 들어가면 후퇴하라고 소리를 지른다. 다소 과격하지만 이 남자의 진심이다.



*든든한 남편의 모습

처음 한 겹의 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5t짜리 합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흠땀이 층이 나왔다. 어림짐작으론 30cm 두께로 갈빗살 같은 나무에 얹혀서 돌처럼 무겁게 굳어진 것으로 보였다. 처음 발견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서까래라고 오해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부분 역시 꽤 오래전에 추가로 작업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렇게 서까래 아래 또 한번의 흠땀이 층을 만든 것은 ‘단열’을 위한 작업으로 보였다.

전문 시공업체에서 원하는 작업방향도 H빔을 넣어 보강하는 것으로 서까래와 천장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작업하는 방법이었다.

그 옛날에는 좋은 단열재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흠과, 나무였다.

두꺼운 흠땀이 단열재는 오랜 시간이 지나니 그 무게 때문에 받치고 있던 보가 휘어질 만큼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니, 많이 높지 않은 다락의 방 정도의 높이가 위에 더 있었다.

우리는 우선 최대한 무거운 흙층을 아래로 떨어트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엄청난 먼지로 눈이 충혈되고, 기관지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작업이 끝난 후,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남편도 이런것일 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면서 알았다면 다시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몇 달전 시공업체 사장님이 말한 것과 비슷해서 웃음이 났다.

그 와중에도 참 다행인 것은 천장을 철거하면서 상상했던 그 험한(?)것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마도..)

서까래 천장은 100년이 훨씬 지나고 난 뒤, 모습을 보였다. 힘을 받는 나무를 가로질러 수 수깡이나 대나무, 싸리나무 같은 질긴 나무들을 엮은 모습이었다. 보통의 시골집 옛날 천

*흙의 무게에 휘어져 버틴 중간 보



장은 서까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까(?)봐야 알기 때문에 사실 상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우리의 경우, 다른 집들에 비해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느껴졌다. 주렁주렁 달린 먼지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내 눈엔 참 예뻐보였다.

안방이 위치한 천장을 철거 하는데 꼬박 몇 주 동안 나눠 작업을 이어서 진행했고, 그 경험으로 중간 방과 부엌의 천장은 비교적 쉽게 철거 할 수 있었다. (역시 일은 힘든 일부터 먼저 해야 상대적으로 나머지 일들이 쉽게 느껴진다.)

물론 마지막 남은 방의 천장은 아직 남아있다. 작업을 하는 동안 휴식을 할 수 있는 방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건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차 후에 철거를 할 수도있지만, 지금의 생각으론 그대로 남겨두고 사용해 볼 참이다.

천장을 철거하면서 서까래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잠시, 이후의 진행될 작업들을 생각하니 또 다시 현실로 쿵! 하고 내려왔다.

우선 이 수수깡으로 노출된 천장의 집은 단열에 취약하다는 점, 마감재와 마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전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철거를 하게 되면서 보인 금이 간 대들보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한옥집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무너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급한대로 서포트 몇 개를 대들보 주변에 심어놓고, 보강만큼은 관련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2024년의 겨울을 맞이했다. 🐷



*수수깡, 대나무로 엮은 천장의 모습

부부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장미 나무 아래 ‘파’ 두개가 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다. 주인공인 ‘파’를 먼저 소개한다. ‘파’는 나의 분신 같은 존재로 내 작업의 자주 등장한다. 주로 파 하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둘이다. 파 하나는 ‘나’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이다. 이 파 둘은 커플이다. 얼레리↑ 꼴레리↓

등장인물을 파악했으니 다음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보자. 얼큰이 장미가 달려 있는 나무가 있고 그 아래 파 두개가 서 있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구도이다. 나무 아래 남녀가 서 있는 그림은 많이 그려졌다. 그런 그림들 중 선악과나무 아래 아담과 이브가 서 있는 그림을 참고해 그렸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아담과 이브는 인류최초의 커플이고, 그들이 살던 시대의 주인공이다. 그것처럼, 나의 세계를 담은 나의 그림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된다.

많은 서양 고전 그림에서 아담과 이브는 날씨 좋고 천연 농산물이 지천에 널려 있고 돈 걱정 없는 이른바 이상향의 세계라고 일컫는 에덴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 그들에게 곧 불안한 미래가 닥쳐 올 것 같다. 그림 곳곳에 뱀과 코끼리, 앵무새 등의 진기한 동물들과 과하게 탐스런 과일이 있다. 이러한 암시들로 하여, 이 커플의 미래도 마냥 무지개 빛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를 감지 할 수 있다.

그림에 세해 보이는 것들이 있고,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면 대부분 현실이 된다. 반전은 아주 가끔 일어날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는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 별로 풍요의 낙원에서 고난이 가득한 현실의 세상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것은 행복 끝 불행의 시작~ 인가



그림1부부-낮, 20x30cm, 한지에 목판, 2025

싫기도 하지만 이 커플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일이고, 서로에게 의미가 생기는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이 커플은 성숙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야 왔다.

우리 커플에게도 의미 있는 만남이, 일이, 시련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흘러 지나치거나, 어쩔면 사진 한 컷으로만 남을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기억하기 위해 나는 그림으로 남긴다. 거기에 추가로 축복하며 지금에 충실한 삶을 살자는 메세지와 결심을 더했다. 그런 생각은 ‘카르페 디엠(Carpe diem)’을 떠올리게 했고, 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로 이어졌다. 장미향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시다.

<소녀들에게 충고> 로버트 해리(Robert Herrick, 1591-1634)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동안
장미 봉오리를 모아라
늙은 시간은 끊임없이 날아가며
오늘 미소 짓는 바로 이 꽃도
내일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짝아, 여기 이곳에서 같이 장미를 모으고 키우며 잘살아 보자!

장미를 그리며 현재에 충실히 라는 의미 곱씹어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나를 돌이켜 보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향 울산을 떠나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지금은 충북 진천에 살고 있다. 이런 나의 스토리로 떠나온 고향과 부모님께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안부 인사를 전하고 낯선 동네에서 잘 자리 잡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장미에 더해 진다. 장미에게 부여한 의미가 많아졌다. 이 많은 의미를 장미의 얇은 꽃잎 위에 올려놓으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렇지만 하나만 더 덧붙인다. 장미가 어쩔지 익숙하다 싶었는데, 울산과 진천을 상징하는 꽃이 장미다. 반가운 우연이다.

이 작품은 지난 7월 울산 목판화 페스티벌에 전시되었다. 전시를 준비하며 든 생각을 적어 보았다.

작가로 활동하면서, 고향에서 하는 첫 전시이자, 공식적인 첫 판화 전시다. 이제까지 참여한 모든 전시에 마음을 다해 왔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조금 더 긴장이 되고 신경이 쓰였지만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했다. 이렇게 쓰고 보니 개인전 이나 그 비슷한 무언가를 하나 보다 라고 느껴 질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100명정도의 작가가 참여하는 큰 전시에 작은 사이즈 작품 3점을 전시 한다. 큰 전시에 아주 소박하게 참여한다. 오프닝 참석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울산에 다녀왔다.

전시준비와 전시장으로 가는 길 옛날 생각이 났었다. 대입을 준비하며,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고집 했었다. 그 때의 나는 ‘참 꿈이 있는 아이’ 였다. 서울에서 공부해서 유능하게 작업하는 멋진 어른이 되어야지! 살도 빼고 외모도 가꿔서 몰라볼 정도로 예뻐져야지! 고향에서 뭔가 할 기회가 온다면 금의환향 하고 싶다는 아주 야무진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이런 꿈을 말하고 다니면 재수 없어 보일까 봐 절대 말 할 수 없었다. 소녀의 유치 찬란한 청운의 꿈. 40대 중반인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다마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1단계 계획은 이루어졌지만, 그 후로 꿈은 급격하게 희미해 져갔고, 안연하게 되었다. 꿈꿨던 것을 해내지 못했다. 당연히 금의환향 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화려한 고향나들이가 아니다. 그래도 고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컸다.

고향이라는 것이 참... 뭐라고....

그리고 보니, 작년에 울산 옆 도시인 부산 북페어에 참여 했을 때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들리는 사투리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름을 느꼈었다. 살짝 울컥했었다. 거의 만석이었는데 모든 테이블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고 있었다. 어린시절로 돌아 간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이라랄까? 반가움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다. 이 때도 첫 북

페어 참여로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 나 자신도 모르게 계속 긴장된 상태로 살아왔는데 사방에서 들리는 사투리에 마음속에 있던 뭔가가 풀려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초보 책 제작자로 첫 북페어 참여에서 느낀 좌절과 반성의 자아비판으로 생각이 많았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사투리에 어린시절 고향에서의 꿈이 올라오다가 말아서 울적과 반가움이 공존 했던 것 같다.

꿈처럼 멋지게 짠~하고 등장하는 작가는 못되었지만 그래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대단한 일 같다. 축복이고, 괜찮은 팔자?다. 더구나 '전시 할 만한 작품'을 작업을 해내고 있다는 것은 참 칭찬 할 만한 하다.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한, 다음에 더 멋진 걸 내놓자! 전시 오프닝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다짐을 했다. 🐷

사진1_울산 목판화 페스티벌, 2025, 전시전경





그림2 부부-밤, 20x30cm, 한지에 목판, 2025



밀크티는 맛있다. 특히나 유제품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밀크티의 경우 강한 달달함을 갖춘 향긋한 우유의 느낌으로 갈증과 당 부족을 해결해주는 음료이기도 하다. ‘강한 달달함을 갖춘 향긋한 우유’라는 표현은 밀크티를 과거 캔음료로 접했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캔 음료 및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들의 맛은 대체로 비슷하였는데 그나마 대만산 밀크티가 좀 더 홍차의 향이 짙었다 정도로 구별되고 있었다.

근래 지인의 카페에서 마신 밀크티는 생크림을 얹었다. 그것도 직접 손으로 치댄 생크림. 차에 대한 식견이 없지만 좋은 홍차를 쓴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맛은 분명히 달콤하긴 하나 때리듯이 강하게 느껴지는 단맛이 아닌, 부드러움 속에 향긋함이 허 위로 굴러가는 그런 달달함이다.

이 지인은 자전거 모임에서 만났고, 어느덧 이 카페는 우리 자전거 모임의 아지트처럼 되었다. 한 참 더운 날 라이딩 중에 들리면 커다랗고 투명한 사각 얼음이 담긴 생크림 밀크티가 매우 땡기는 것이다. 그래서 야간 라이딩 중에 들려서 누가 밀크티를 시킨 것을 보면, 오늘 소비한 칼로리가 도로 보충될 텐데 염려를 하면서도 마시고픈 충동을 느끼게 한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지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5. 8 / 36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 DM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희진, 김혜현, 오종원, X, 이채연, 한량윤씨